

< 붙임 1 >



---

#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

2023. 5

조 사 국 · 경제모형실

# 차 례

---

<b>1. 세계경제</b>	<b>1</b>
▶ 글로벌 경제	2
▶ 주요국 경제	3
▶ 국제에너지 가격	7
▶ 전망 Baseline의 주요 전제	8

---

<b>2. 국내경제</b>	<b>9</b>
▶ 성장	10
[BOX 1] 한·일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평가	
▶ 물가	20
[BOX 2]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	
▶ 고용	26
▶ 부동산	28
[BOX 3] 강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 금융	32
▶ 시나리오 분석	33

---

# I.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 1. 세계경제

### KEY TAKEAWAY

- ① **글로벌 경제는 금년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흐름을 나타내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과 은행부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 1/4분기중 세계경제는 중국의 리오프닝, 선진국의 견조한 고용 상황 등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향후에는 통화긴축의 영향이 이어지고 신용여건이 타이트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신용긴축의 영향으로 하반기중 완만한 역성장을 하는 반면, 유로지역은 고금리 지속에도 에너지 수급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등 성장흐름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 세계교역을 보면 주요국의 제조업 생산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팬데믹 이후 중국경제가 내수·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상품교역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이어지고 IT 수요부진도 완화되면서 세계교역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 ②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물가의 경우 임금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재화수요 부진 등으로 headline 및 근원 물가 모두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③ **높은 물가상승압력 지속으로 주요국 통화당국의 긴축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은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 美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이 완화될 때까지 금리수준을 높게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우려로 조기 금리인하(dovish pivot)를 기대하는 등 시장과 당국 간 인식차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향후 세계경제 전망경로상에는 미국부채한도 협상과 함께 중국경제 회복 양상과 미·중 갈등의 전개상황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 글로벌 경제

**1. 세계경제는 통화긴축의 영향이 지속되고 신용여건이 타이트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1/4분기 중 세계경제는 중국 리오프닝,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고용 등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제조업의 경우 신규 수출주문 및 가동률이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향후 글로벌 경제는 그간의 금리인상 영향이 지속되고 신용긴축 효과도 더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흥국은 중국 리오프닝, 글로벌 해외여행 회복<sup>1)</sup> 등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신용긴축의 영향도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그 속도는 팬데믹 이전 성장세(2015~19년 평균 3.4%)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금융불안 심화, 미·중 긴장에 따른 글로벌 분절화<sup>fragmentation</sup>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세계교역**은 주요국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중국경제가 리오프닝 이후 대면서비스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내 재화 수요 확대, IT 수요부진의 점진적 완화 및 서비스교역 개선세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물가**는 에너지·곡물 가격 안정 등으로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둔화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2. 국제금융시장은 SVB사태 이후 급격한 불안 우려가 진정되었으나 취약부문과 신용긴축의 영향에 대해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SVB사태 이후 미국 일부 지역은행의 주가 급락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은행부문의 신용축소가 향후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美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이 해소될 때까지 금리수준을 높게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우려로 조기 금리인하<sup>dovish pivot</sup>를 기대하는 등 시장과 당국 간 인식차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美연준의 추가 긴축기대 약화로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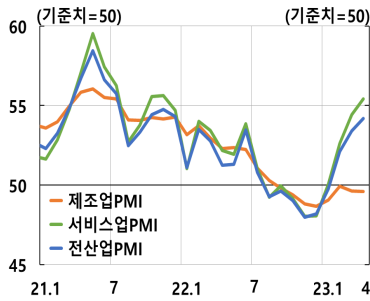
1) 1/4분기중 글로벌 해외여행은 팬데믹 이전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도착승객 기준, UNWTO 2023.5월). 중국의 경우 3월중 자국내 항공여행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해외여행은 항공·여행 업계 병목 현상 등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3월 현재 19년 대비 18% 수준, Gavekal 5.8일).

서비스업 중심 개선

상품교역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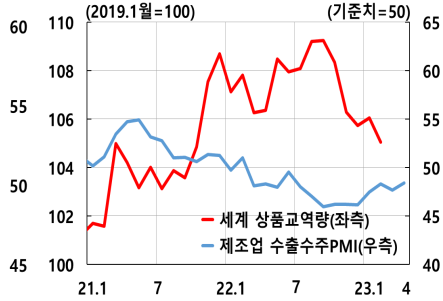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 성장세 둔화

[그림 1.1] 글로벌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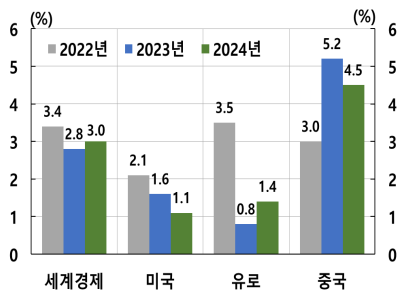
자료: JPM

[그림 1.2] 세계 상품교역 및 제조업 수출수주PMI



자료: CPB, JPM

[그림 1.3] 주요국 성장률 전망



자료: IMF(2023.4월)

## 주요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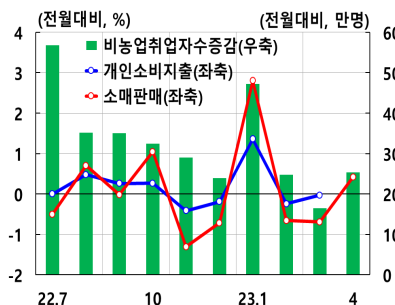
**3. 미국경제는 견조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향후 고금리와 신용긴축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금년 들어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상황과 초과 저축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원물가도 더디게 둔화되는 모습이다<sup>2)</sup>. 1/4분기 GDP는 재고투자(기여도, -2.3%p)의 큰 폭 감소에도 개인소비(+2.5%p)가 호조를 보이면서 1.1%(전기대비 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향후에는 SVB사태 이후 은행들의 대출 태도 강화 등으로 신용긴축과 고금리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둔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 및 소비의 지속에 따른 상방 리스크와 은행불안 심화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병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美 소비·고용 1월 반등 이후 둔화

대출태도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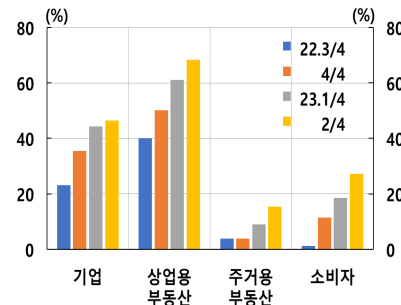
고용 여건은 여전히 견조

[그림 1.4] 미국 소비 및 고용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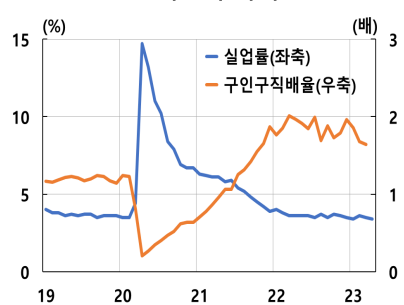
자료: 미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그림 1.5] 미국 부문별 대출태도<sup>1)</sup> 추이



주: 1) '강화'응답비율-'완화'응답비율, 부문별 평균 기준  
자료: 미 연준

[그림 1.6] 미국 실업률 및 구인구직배율<sup>1)</sup>



주: 1) 구인건수/실업자수  
자료: 미 노동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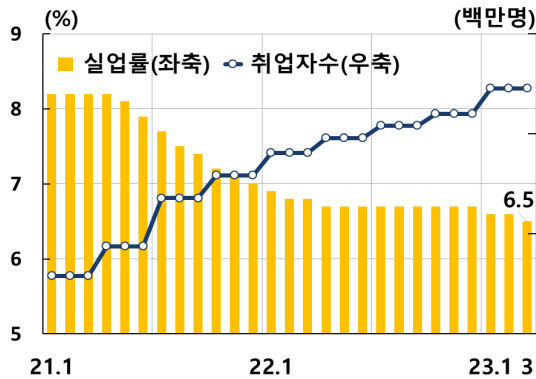
2) 23.4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4.9%로 22.12월(6.5%)에 비해 1.6%p 둔화되었으나, 근원물가상승률(5.5%)은 22.12월(5.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4. 유로지역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상승하면서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내고 노동시장도 서비스 부문 호조, 건설 부문의 인력수요 증가 등으로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수급여건이 개선<sup>3)</sup> 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오름세<sup>4)</sup>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유로지역 경제는 에너지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회복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수급 여건은 유럽의 높은 가스재고율, 양호한 공급관리 및 수요감축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sup>5)</sup>. 다만, 높은 물가가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대출여건이 악화되고<sup>6)</sup> 투자도 위축<sup>7)</sup> 되면서 낮은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의 오름세 등으로 인해 ECB의 긴축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실업률 역대 최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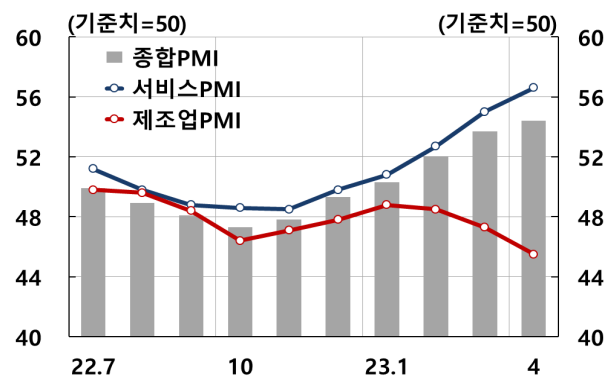
[그림 1.7] 유로지역 고용상황



자료: Eurostat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지속

[그림 1.8] 유로지역 기업심리



자료: Bloomberg

#### 5. 중국경제는 리오프닝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이후 대

면서 서비스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연초에 집중된 front-loaded 정부 정책지원으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수출입은 2~3월 중 일시적으로 반등<sup>8)</sup>하였으나, 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부동산시장은 기존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및 거래량의 회복 조짐이 나타났으나, 신규주택 건설 등 투자 활동은 부진한 흐름<sup>9)</sup>을 이어갔다. 향후 중국경제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천연가스 재고율(22.4월 29.4% → 23.4월 56.9%)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연초 71.8유로/Mwh → 4월말 37.9유로/Mwh).

4) 유로지역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1월 5.3 → 2월 5.6 → 3월 5.7 → 4월 5.6

5) 다만 러시아 가스공급 완전 중단, 중국 가스수요 급증에 따른 글로벌 물량확보 경쟁 심화 등으로 공급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6) ECB 은행대출서베이에 따르면 1/4분기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강화 응답비율이 감소를 27%p 상회).

7) ECB 3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투자는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CB 은행대출서베이에 따르면 1/4분기 기업의 대출수요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감소 응답비율이 증가 응답비율을 38%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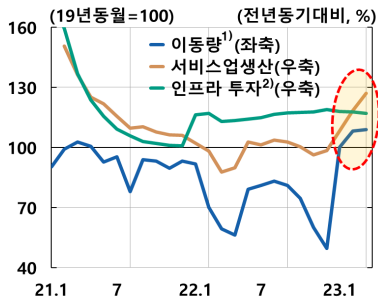
8) 이는 지난해(22.2월)보다 이른 춘절 연휴(23.1월) 및 리오프닝에 따른 공급망 제약 완화 등에 기인한다.

9) 정부의 부양조치가 부동산 개발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주택완공에 집중되는 가운데, 수요 진작 조치는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신규주택 착공 등 관련 투자 활동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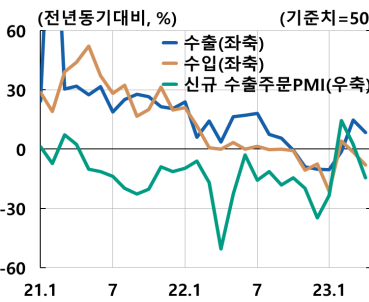
한편, 축적된 초과저축 등에 힘입어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서비스에서 재화로 확대<sup>10)</sup>되고 해외여행도 늘어나면서 주변국에 대한 파급효과<sup>spillover effect</sup>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선진국 수요 둔화, 고용여건의 느린 개선<sup>11)</sup>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 회복세	수출입 부진 지속	부동산 투자 부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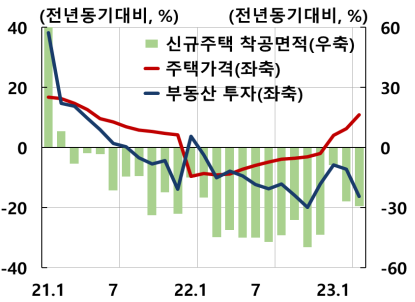
[그림 1.9] 중국 서비스업생산 및 인프라 투자



[그림 1.10] 중국 수출입 및 관련 PMI



[그림 1.11] 중국 부동산가격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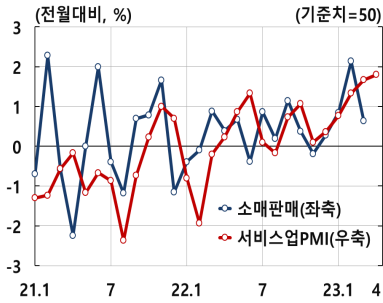


주: 1) 11개 주요도시 지하철이용객수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2) 누계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Wind

**6. 일본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서비스업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sup>12)</sup>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임금상승 등이 소비 등 내수를 뒷받침하면서 앞으로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의 대외 파급 효과 및 IT 경기<sup>13)</sup>가 기대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제조업<sup>14)</sup>과 수출 회복은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완화적 정책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 중국은 장기간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지속하면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재화소비가 추세를 상당폭(3~6%) 하회하고 있어 회복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11) 리오프닝 이후 중국 전체 도시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면서 금년 4월중 5.2%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청년(16~24세) 실업률은 관련 통계의 작성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인 20.4%까지 상승하였다.  
 12) 23.4월 일본 방문 관광객수는 195만명으로 팬데믹 이전(19년 연평균) 대비 73.4%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13) 일본의 대중수출 비중(총수출액 대비)은 2022년 기준 19.4%이며, 전자기기의 대중수출 비중도 22.6%로 높은 수준이다.  
 14) 23.1/4분기 일본 산업생산은 전기대비 1.8% 감소하였다.

[그림 1.12] 일본 서비스업PMI와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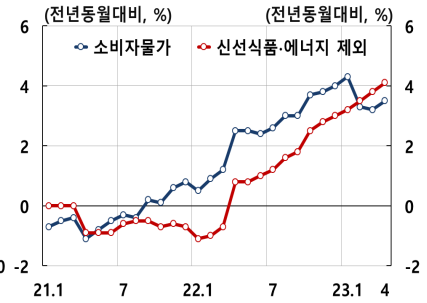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S&P Global

[그림 1.13] 일본 수출



자료: 일본 재무성, HAVER

[그림 1.14] 일본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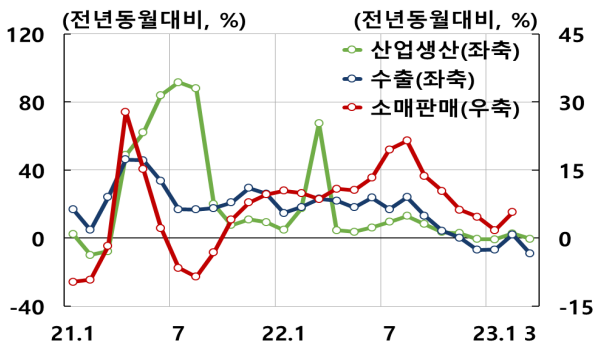


자료: 일본 통계청

7. 아시아 신흥국은 수출둔화가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다. 중국의 내수·서비스 중심 성장,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생산과 수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통화긴축에 따른 내수 둔화도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물가상승세 둔화, 외국인 관광객 회복<sup>15)</sup> 등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글로벌 수요 약화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각국의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은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이다<sup>16)</sup>.

아세안5국 경기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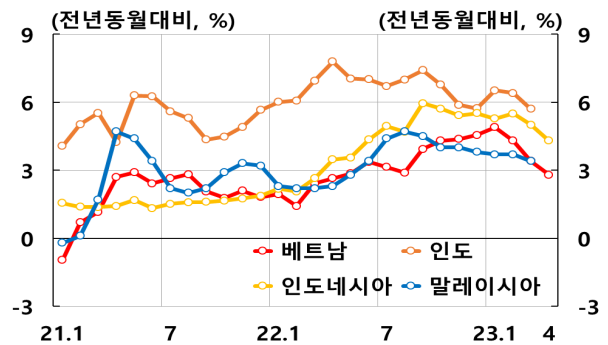
[그림 1.15] 아세안5국 주요경제 지표



자료: 각국 통계청, CEIC, HAVER, Bloomberg

아시아 신흥국 인플레이션 둔화

[그림 1.16] 아시아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각국 통계청, CEIC, HAVER, Bloomberg

15)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대상 국가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포함되었다(한국과 일본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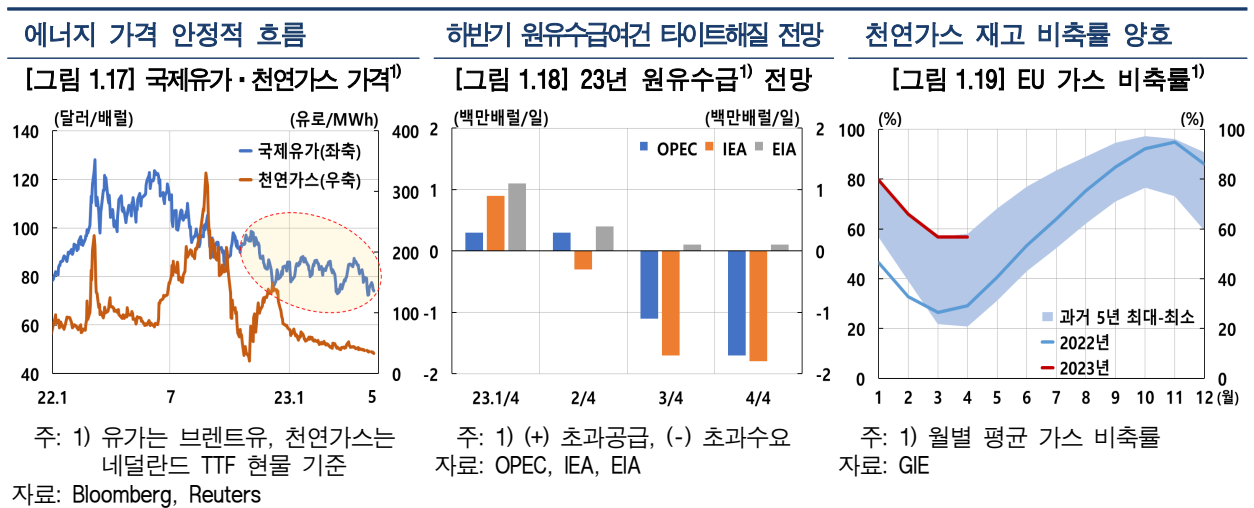
16) 금년 3~5월중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는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인도네시아·인도는 동결하고 베트남은 인하하였다.



## 국제에너지 가격

**8. 국제유가는 하반기 이후 중국수요 회복, 글로벌 항공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이후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SVB사태, OPEC+ 감산결정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였으며, 4월 중순 이후에는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로 상당폭 낮아져 최근에는 75달러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유가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수요 확대, 하계 이동수요 증가 및 해외여행 회복 등으로 수급여건이 타이트해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압력<sup>17)</sup>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OPEC+ 추가 감산, 미국 전략비축유 매입 가능성<sup>18)</sup>, 일부 지역 공급차질<sup>19)</sup> 등은 상방리스크로, 선진국의 경기둔화 및 추가적인 금융불안 우려는 하방리스크로 잠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9. 한편 천연가스 가격은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가격흐름이 예상된다.** 지난해 러시아의 PNG(파이프 천연가스) 공급중단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온화했던 겨울 날씨와 유럽지역의 에너지 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sup>20)</sup>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유럽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재고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아시아지역의 LNG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sup>21)</sup>도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보다 더욱 빈번해진 이상한파 등 기상이변, 독일의 원전가동 완전 중단에 따른 화석에너지 수요 확대 가능성은 상방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17) IEA, EIA, OPEC 등 주요 에너지 기구들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원유 초과수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 미 정부는 하반기중 전략비축유 비축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5.9일).

19) 지난 3월말 이라크와 터키를 잇는 송유관 운영에 이라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제소송 결과에 따라 쿠르디스탄 지역의 원유생산(약 44만배럴 규모 추정)이 중단된 바 있다. 5월 들어서는 캐나다 산불로 인해 약 31만bpd 원유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최대 50만bpd까지의 생산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 LNG(미국, 카타르 등)로의 수입 전환, PNG(노르웨이·아제르바이잔 등) 수입 확대 등 에너지 공급선 대체 노력도 유럽지역 천연가스가격 안정에 일조하였다.

21) 23.1/4분기중 아시아지역 LNG 수입수요는 중국내 생산 증가 및 러시아 PNG 수입증가 등으로 6분기 연속 감소(전년동기대비)하였다.

## 전망 Baseline의 주요 전제

### ▶ 세계경제 성장률(%): 23년 2.5 → 24년 2.8

- 금년 세계성장률은 전년(3.4%)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월 전망 대비로는 실적 효과로 소폭 상향조정되었으나, 향후 흐름은 고금리, SVB사태 이후 신용긴축 등으로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다

### ▶ 세계교역 증가율(%): 23년 2.1 → 24년 3.6

- 연초 주요국의 서비스 부문 호조에도 상품교역은 크게 둔화되었으며 연말로 갈수록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 반도체 경기는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하반기 이후 주요 생산기업의 감산 및 재고조정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회복 시점은 지연

### ▶ 국제유가(브렌트유, 달러): 23년 83 → 24년 84

- 4월 이후 주요국 경기둔화, 미 은행권 불안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하반기에는 중국 수요회복 등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 <주요 전제>

	2022		2023 <sup>e)</sup>		2024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 <sup>1)</sup>	3.4	2.6	2.4	2.5	2.3	3.2	2.8
· 미국	2.1	1.7	0.4	1.1	0.2	1.3	0.8
· 유로지역	3.5	1.0	0.4	0.7	0.9	1.7	1.3
· 중국	3.0	6.1	4.7	5.3	4.7	4.6	4.6
· 일본	1.0	0.8	1.4	1.1	1.4	1.0	1.2
세계교역 신장률(%) <sup>1)</sup>	5.1	1.5	2.6	2.1	3.5	3.6	3.6
국제유가(달러/배럴) <sup>2)</sup>	101	82	85	83	86	83	84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브렌트유,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 2. 국내경제

### KEY TAKEAWAY

- ① **국내경기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다.**
  - ▶ GDP성장률 전망: 23년 1.4%(2월 전망 대비 -0.2%p), 24년 2.3%(-0.1%p)
  - 부문별로는 소비가 서비스수요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며 수출은 상반기중 對중·IT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성장경로상에는 IT경기 반등 시기,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영향 정도,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 ②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는 양호한 서비스수요 및 고용 흐름,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다.**
  - ▶ 물가상승률 전망: [소비자물가] 23년 3.5%(유지), 24년 2.4(-0.2%p)  
[근원물가] 23년 3.3%(+0.3%p), 24년 2.1(+0.1%p)
  - 향후 물가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 ③ **경상수지는 당분간 균형 내외 수준에 머물다가 하반기 이후 상품수출 개선 등으로 흑자 전환되면서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경상수지 전망: 23년 240억달러(-20), 24년 450억달러(-30)
  - IT·對중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비IT수출과 미국·유럽 등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최근 본원소득수지가 배당수입 확대로 크게 늘면서 상품·서비스수지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 ④ **고용상황을 보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대면활동 정상화로 서비스업 노동수요가 지속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도 늘어나면서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다.**
  - ▶ 취업자수 증가규모 전망: 23년 25만명(+12), 24년 18만명(+3)
- ⑤ **향후 중국경제의 회복 양상, 선진국 금융불안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적 시나리오<sup>alternative scenario</sup>를 분석하였다.**
  - '중국경제의 리오프닝 모멘텀이 강화'되는 경우<시나리오 1> 對중·IT수출과 중국인 방문객이 baseline보다 증가하고 에너지가격도 상승하면서 금년 국내 성장률이 1%대 중반, 물가상승률은 3%대 후반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경우<시나리오 2> 반대로 對중·IT수출과 관광객이 감소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면서 성장률이 1%대 초반, 물가상승률은 3%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성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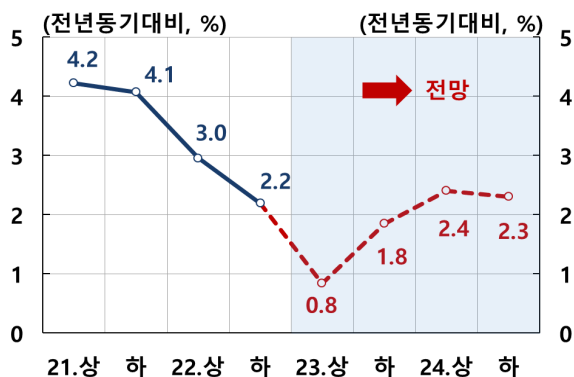
10. 국내경기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중 성장률은 1.4%로 2월 전망수준(1.6%)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분기중에는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對중·IT수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0.3%, 전기대비) 전환에 그쳤으며, 2/4분기에도 회복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가 서비스·해외소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이 중국 리오프닝 영향, IT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 둔화 전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對중·IT 익스포저가 큰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2)</sup>.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흐름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2.3%로 금년(1.4%)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이 완화,  
회복 속도 당초 예상보다 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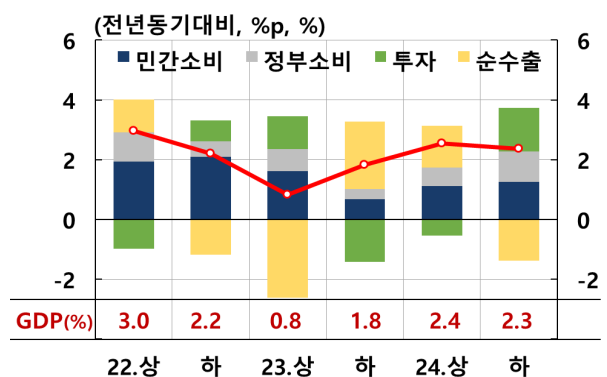
하반기중 수출 중심 개선

[그림 2.1] 경제성장률 전망경로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그림 2.2] 지출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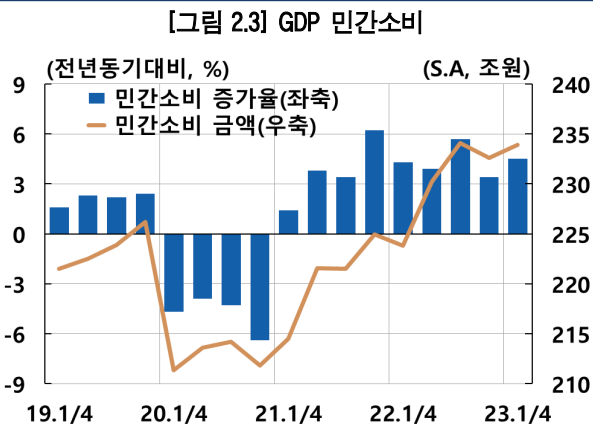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11. 성장 전망경로상에는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영향 및 IT경기 향방,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국내수출의 빠른 개선, 예상보다 견조한 서비스업 업황 등이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 제약 및 IT경기 회복 지연, 선진국 경기둔화 심화, 국내 취약부문 부실 등은 하방리스크로 잠재되어 있다.

22) 금년 성장전망(%), Bloomberg): 한국 2월 1.6 → 5월 1.2, 일본 1.3 → 1.0, 대만 2.1 → 1.7, 베트남 6.2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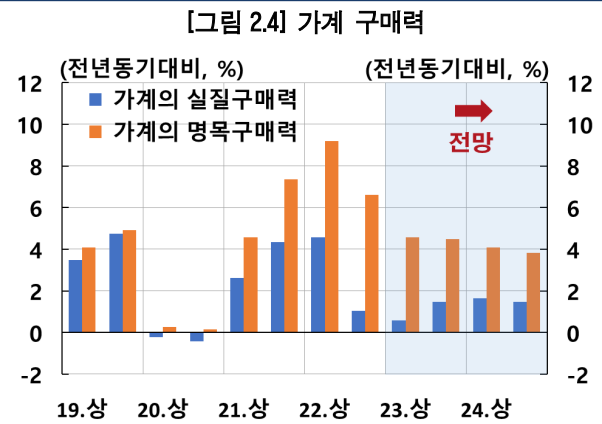
**12.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으나 금년 1/4분기 들어 방역조치 추가 해제에 따른 펜트업 수요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sup>23)</sup>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형태별로는 재화소비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제약되었으나 서비스 소비의 경우 펜트업 수요 지속, 정부의 내수 대책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외소비는 국제 항공노선 운항 확대<sup>24)</sup>가 이어지면서 빠른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민간소비는 금년 중 2.3%, 내년중 2.4% 증가할 전망이다.

1/4분기 민간소비 개선



자료: 한국은행

가계 구매력 완만한 증가세 지속 전망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조사국

**13. 설비투자는 IT경기 위축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하반기중 공급차질 완화와 대규모 반도체 관련 투자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IT경기 부진 심화에 따른 반도체기업 투자 축소 등으로 1/4분기중 4.0%(전기대비) 감소하였다. 향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높은 자본조달비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년중 설비투자는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IT경기 회복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점차 살아나면서 설비투자가 3.7% 증가할 전망이다.

23) 소비자심리지수: 23.2월 90.2 → 3월 92.0 → 4월 95.1 → 5월 98.0

24) 국제선 운항횟수(정기편)는 금년 3월중 팬데믹 이전(19.3월) 대비 58.5%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정부는 9월 말까지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23.4월).

1/4분기중 설비투자 기계류 중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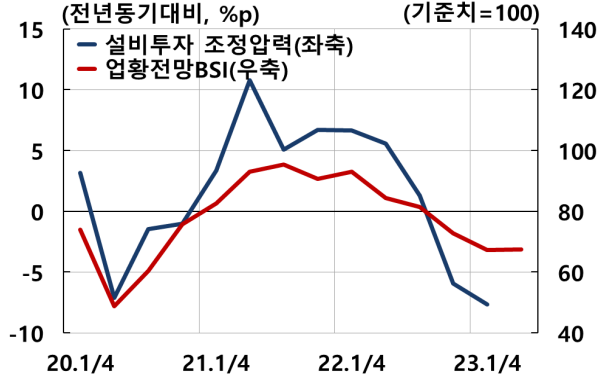
제조업 업황전망BSI와 설비투자 조정압력<sup>1)</sup> 하락세 지속

[그림 2.5] GDP 설비투자



주: 1)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제조업 업황전망BSI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



주: 1) 생산 증가율 - 생산능력 증가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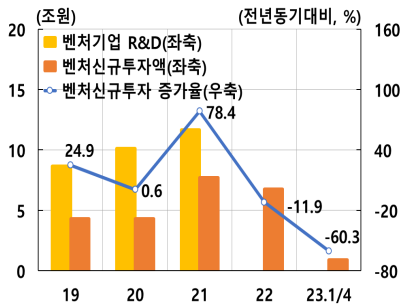
14.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글로벌 경기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수요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SVB사태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sup>25)</sup>과 R&D 예산 확충<sup>26)</sup>, 인공지능(AI)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sup>27)</sup>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년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중에는 IT경기 회복, 인공지능 산업 성장 등으로 증가율이 3.7%로 높아질 전망이다.

신규 벤처투자 큰 폭 감소

하반기 이후 기업실적 부진 완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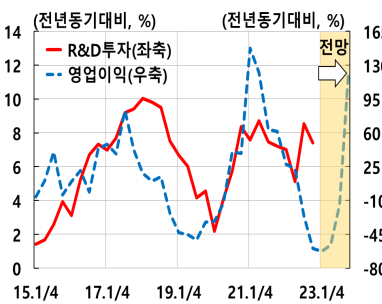
AI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그림 2.7] 벤처기업 R&D 및 투자<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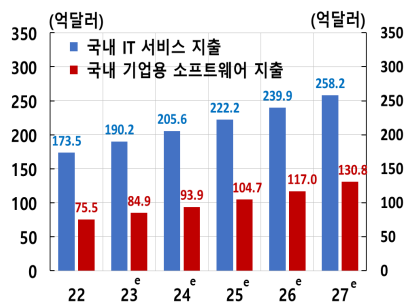
주: 1) 23.1/4분기는 분기 기준  
2) 22년 벤처기업 R&D는 미발표  
자료: 과기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림 2.8] R&D 및 제조업 영업이익



자료: 통계청, Fnguide

[그림 2.9] 국내 IT 서비스 지출



자료: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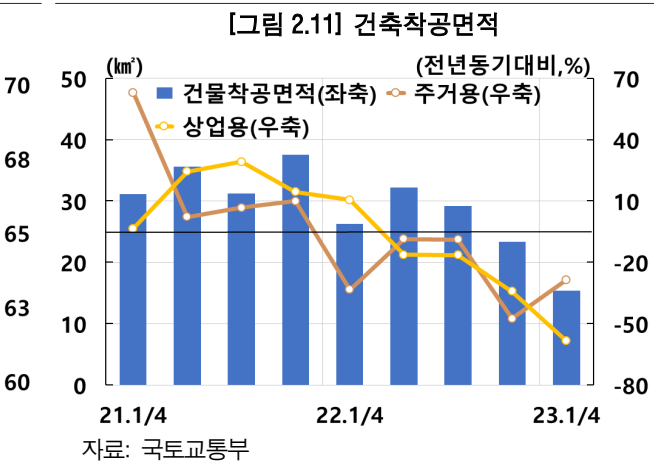
25) 4.20일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에 정책금융 2.2조원, 정책펀드 3.6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하였다.  
26) 4.18일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소재·부품·장비 R&D에 2.3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7) 한국 IDC에 따르면 금년중 국내 IT시장은 1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프트웨어·하드웨어·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시장이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23.4월).

**15.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기착공된 공사의 진척속도가 높아지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신규 공사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데다 정부 SOC 예산도 축소됨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 누증 등으로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점도 공급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년중 건설투자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의 경우에도 대규모 플랜트 공사<sup>28)</sup>를 중심으로 토목건설이 늘어나겠으나 주거용 건물건설이 부진하면서 0.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분기 건설투자 증가



착공면적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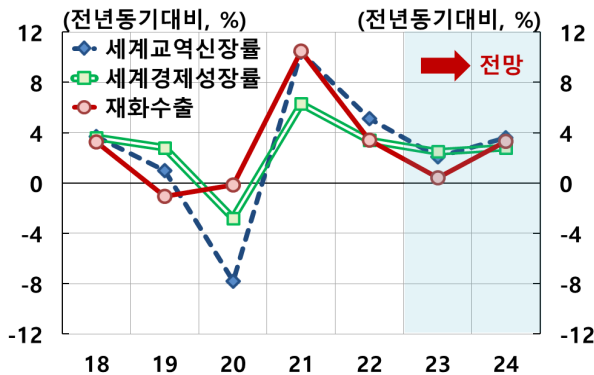


**16. 재화수출(GDP 기준, 전기대비)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1/4분기중 재화수출은 반도체 등 IT품목이 부진하였으나, 자동차가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호조를 보이는데 힘입어 전분기의 큰 폭 감소(-5.1%)에서 상당폭 반등(+4.7%)하였다. 지역별로는 대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큰 폭 감소한 반면, 대미국과 유럽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재화수출은 당분간 IT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 파급효과와 IT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재화수출은 소폭 증가(0.4%)에 그치겠으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가세가 3.3%로 확대될 전망이다.

28) 산업플랜트 수주 금액(경상): 22.2/4 6.4조원 → 3/4 4.8조원 → 4/4 3.9조원 → 23.1/4 9.6조원

재화수출은 세계교역이 둔화되면서 부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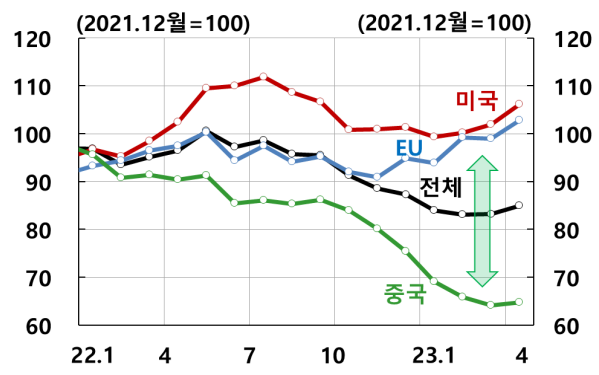
[그림 2.12] 재화수출<sup>1)</sup>, 세계교역 및 GDP 성장률



주: 1) GDP 실질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전망

대중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대미·EU는 증가

[그림 2.13] 지역별 통관수출



자료: 관세청

17. 통관수출(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수요 부진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품목은 금년 들어 반도체 수출단가<sup>29)</sup>가 급락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sup>30)</sup>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중국 모바일 수요 개선 등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비IT품목의 경우 화공품·석유제품·철강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최근의 대기수요를 감안할 때 당분간 호조<sup>31)</sup>를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는 대기수요 축소와 할부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18. 통관수입(금액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에너지가격 하락, 투자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년 들어 원자재 수입이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으로, 자본재 수입은 건설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수입 감소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29) D램 고정거래가격은 21년 7월(4.1달러)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3.1~3월중에는 1.81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7% 하락하였으며 4월에는 1.45달러로 하락폭이 확대(-57%)되었다.

30) 무통관 수출의 경우도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부문 업황 부진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1) 23.1~4월중 수출액이 310.9억달러로 반도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중 19.3%에서 23.1~4월 현재 13.8%로 감소한 반면, 자동차는 2022년중 11.4%에서 15.5%로 상승하였다.



반도체 경기는 하반기 이후 부진 완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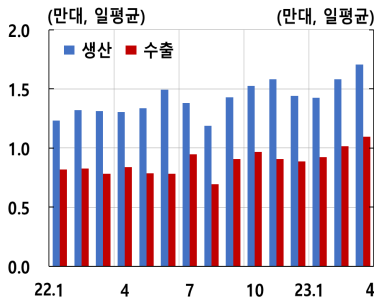
자동차 수출은 호조

에너지 수입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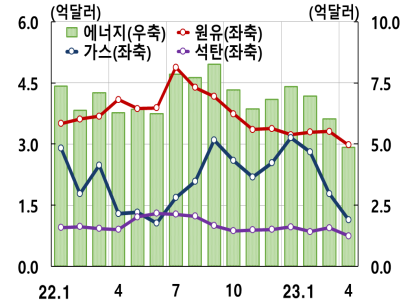
[그림 2.14] D램 수급 및 가격



[그림 2.15] 자동차 생산 및 수출



[그림 2.16] 에너지별 일평균 수입액



주: 1) 기준치=100 이상(이하)은 공급 (수요)우위, 2) 8Gb 평균가격  
자료: Gartner(23.4월)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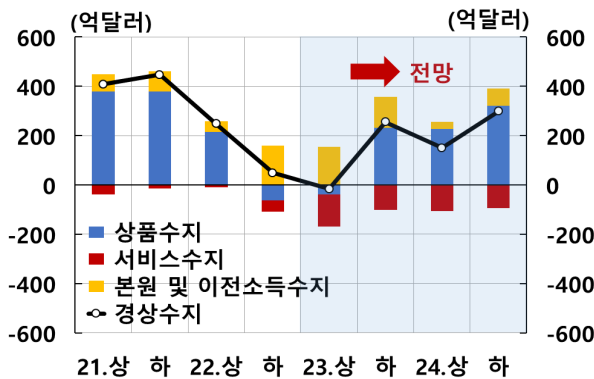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19. 경상수지는 하반기에는 흑자 흐름을 되찾을 전망이다.** 1/4분기 전체로 적자(-44.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월별로는 1월 큰 폭 적자(-42.1억 달러) 이후 3월에는 소폭 흑자(+2.7억 달러)로 전환하는 등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상수지는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뚜렷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대외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중 240억달러, 내년에는 45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하반기 이후 흑자 전환

해외관광객은 일본을 중심으로 급증, 반면 국내입국자 회복은 지연

[그림 2.17] 경상수지 전망경로



[표 2.1] 출입국자 수<sup>1)</sup>

(만명)	2022		2023		
	4/4	1/4	1월	2월	3월
▶ 출국자	321 (48.7)	498 (63.3)	178 (61.2)	172 (65.9)	147 (63.1)
▶ 입국자	148 (32.3)	171 (44.6)	43 (39.3)	48 (39.9)	80 (52.1)
중국인	7 (4.7)	14 (10.8)	2 (6.4)	5 (10.1)	7 (15.1)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주: 1) ( )내는 19년대비 비중(%)  
자료: 한국관광공사

[표 2.2]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sup>e)</sup>		2024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2.6	0.8	1.8	1.4	2.4	2.3	2.3
• 민간소비	4.3	3.3	1.4	2.3	2.2	2.6	2.4
• 설비투자	-0.5	5.3	-11.1	-3.2	-1.8	9.8	3.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7	3.1	3.4	3.3	4.9	2.6	3.7
• 건설투자	-3.5	0.7	-1.4	-0.4	-1.7	1.9	0.2
• 재화수출	3.4	-2.3	3.0	0.4	4.1	2.7	3.3
• 재화수입	4.7	2.2	-2.5	-0.2	1.3	5.0	3.1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표 2.3] 경상수지 전망<sup>1)</sup>

(억달러)

	2022		2023 <sup>e)</sup>		2024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298	-16	256	240	151	299	450
• 상품수지	151	-38	233	195	227	320	547
수출(통관)	6,836	3,065	3,349	6,415	3,403	3,533	6,936
	(6.1)	(-12.5)	(0.6)	(-6.2)	(11.0)	(5.5)	(8.1)
수입(통관)	7,314	3,346	3,389	6,735	3,432	3,469	6,901
	(18.9)	(-7.4)	(-8.4)	(-7.9)	(2.6)	(2.4)	(2.5)
• 서비스수지	-55	-132	-102	-234	-106	-93	-199
• 본원소득수지	229	174	156	330	60	107	167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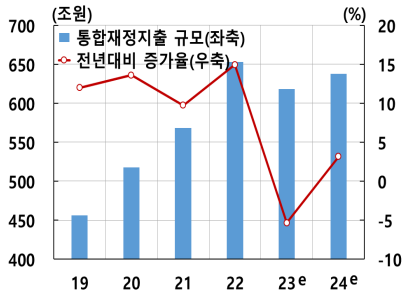
20. 금년중 재정지출은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던 지출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금년중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코로나19 관련 이전지출 등을 줄여나갈 계획이나, 상반기에는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sup>32)</sup>. 한편 최근 경기둔화 및 부동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세수부족<sup>33)</sup>이 나타나고 있어 재정지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내년에는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sup>34)</sup>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이 소폭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으로 개선되면서 23~24년중 -2%대 중반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sup>35)</sup>.

통합재정지출은 23년 중 5.3%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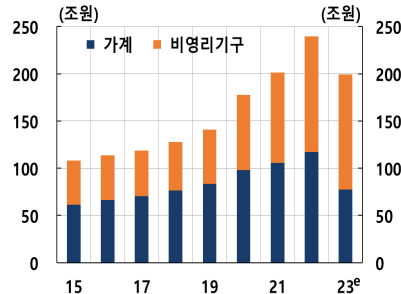
가계 및 비영리기구 이전지출은 큰 폭의 감소가 예상

소득세,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감소 우려가 확대

[그림 2.18] 통합재정지출 전망



[그림 2.19] 가계 및 비영리기구 이전지출



[표 2.4] 23년 예산안 및 진도율

	23년 예산	1~3월 실적		전년대비
		진도율	전년대비	
■ 총수입	625.7	145.4	23.2	-4.3
- 국세수입	400.5	87.1	21.7	-6.3
(소득세)	131.9	28.2	21.4	-6.0
(법인세)	105.0	24.3	23.1	-6.9
(부가세)	83.2	16.5	19.8	-7.3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조사국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조사국

자료: 기획재정부

32)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 관리대상사업(중앙재정)은 2022년에는 204.6조원 규모였으나 2023년에는 242.9조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23.1~3월중 집행액은 82.8조원으로 지난해(72.0조원)보다 10.8조원 증가하였다.

33) 1~3월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감소(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효과 제외시 △14.3조원)하였다.

34) 정부는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은 4%대 후반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35)	(GDP대비, %)	2022	2023 <sup>e</sup>	2024 <sup>e</sup>
▶ 관리재정수지비율 <sup>1)</sup>		-5.4	-2.6	-2.5
▶ 통합재정수지비율 <sup>1)</sup>		-3.0	-0.6	-0.6

주: 1) 2023년은 본예산, 24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BOX 1 한·일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평가

4월 중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수는 9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19.4월) 대비 55%의 회복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106%, 태국인 77% 및 베트남인 69% 등 대부분 국가의 관광객이 크게 회복되었으나, 팬데믹 이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은 24% 회복되는데 그쳐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해외여행 자체가 3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18% 정도로 매우 느리게 회복되는 데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만명, %)	19년 월평균 <sup>1)</sup>	22.11월	12월	23.1월	2월	3월
▶ 전체 외국인 입국자	146 [1,750]	46	54	43	48	80
(회복률)		(32)	(37)	(39)	(40)	(52)
- 중국인	50 [602]	2	3	2	5	7
(회복률)		(5)	(5)	(6)	(10)	(15)
- 중국인 이외	96 [1,148]	44	51	41	43	73
(회복률)		(46)	(54)	(58)	(58)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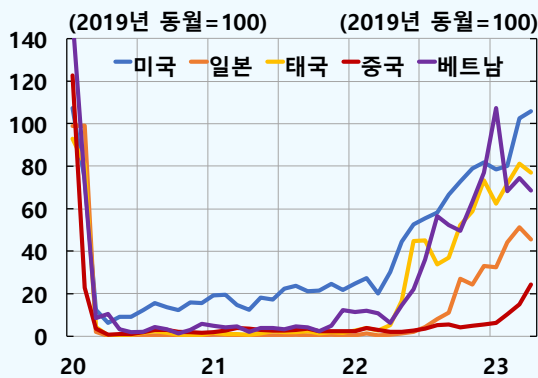
주: 1) [ ] 안은 연간 총입국자

자료: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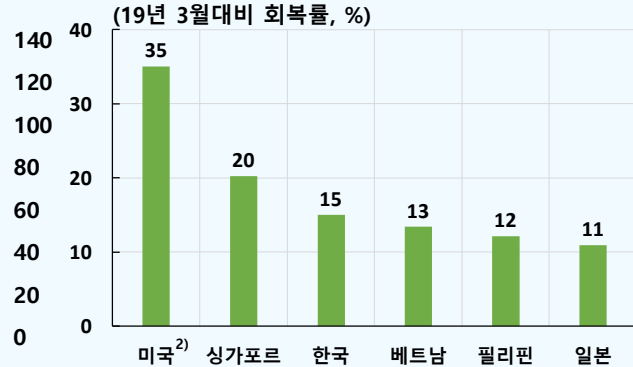
중 관광객 회복부진이 전체 외국인 입국자수 개선을 제약

대부분 국가들의 중국인 관광객 회복은 느린 편

[그림 B1.1] 외국인 관광객수 국적별 회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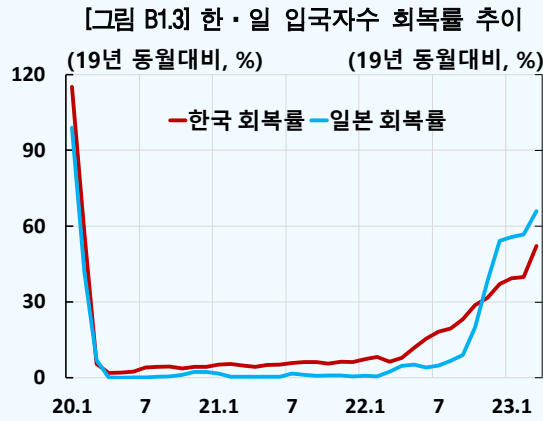
[그림 B1.2] 주요국 중국인 입국자수 회복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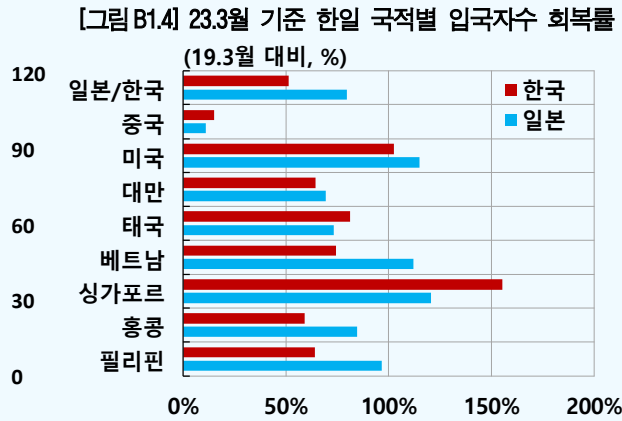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3월 기준 66%로 우리나라보다 14%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률은 3월 기준 11%로 우리나라보다 저조하나, 우리나라(80%)를 비롯해 홍콩, 대만 등 여타 국가로부터의 회복률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관광객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엔화 약세, 일본정부의 관광객 유치정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의 빠른 회복은 여행수지 개선<sup>36)</sup>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일본 입국자수 회복률이 우리나라 회복률을 상회

23.3월 현재 일본의 관광객 유입은 대부분 국적에서 우리나라를 상회



자료 : 한국관광공사, 일본관광청



자료 : CEIC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국 관광객이 일본과 같은 속도로 회복(150만명 제고)된다고 가정<sup>37)</sup>하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을 통해 연간 0.12%p 내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 추정치는 방한 외국인들의 소비 규모 및 구조를 감안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시산한 결과다. 이는 IT경기 회복과 중국 리오프닝 파급 효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경우 관련 서비스업 업황 개선을 통해 성장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일본정부의 관광입국정책

일본의 관광정책을 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 내국인의 해외여행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3년 관광입국(觀光立國) 선언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한국(782만명)보다 적은 679만명에 그쳤던 일본 방문 외국인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188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한국 방문 외국인 1,750만명을 큰 폭 상회하였다<sup>38)</sup>. 금년 3월 일본정부는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광입국추진계획(4차)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36) 일본의 금년 1/4분기중 여행수지는 7,408억엔 흑자로 2022년 3/4분기 789억 엔 및 4/4분기 5,258억 엔 대비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 여행수지는 1/4분기 중 32.4억 달러 적자로 22년 3/4분기 23.0억 달러, 4/4분기 23.8억 달러 적자보다 악화되었다.

37) 23.1/4분기부터 24년말까지의 외국인 입국자수 전망경로가 23.1/4분기말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회복률 격차(14%p)만큼 매분기 상향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38) 세계경제포럼(WEF) 관광지수(19년 이전 관광경쟁력지수, 이후 관광발전지수) 순위(09년 → 21년): 일본 25위 → 1위, 한국 31위 →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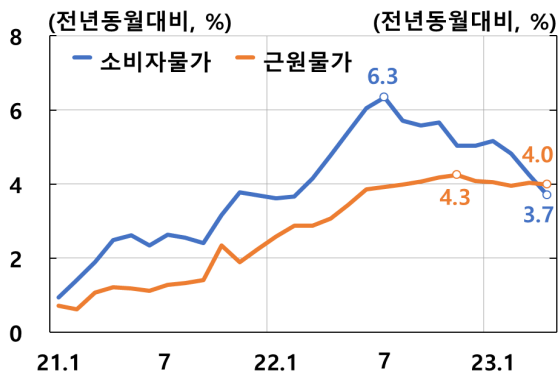
## 물가

21.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최근 3개월 연속 4% 수준을 유지하며 경직적인 흐름<sup>39)</sup>을 이어갔다(2월 4.0% → 3월 4.0% → 4월 4.0%). 품목별로 보면 상품 가격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집세 오름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물가(집세 제외)는 개인서비스(5.7% → 5.8% → 6.1%)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22.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중반 이후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2/4분기 들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졌다(2월 4.8% → 3월 4.2% → 4월 3.7%). 이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석유류가격(-1.1% → -14.2% → -16.4%)이 1년 전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 소비자물가 빠르게 둔화, 근원물가 더디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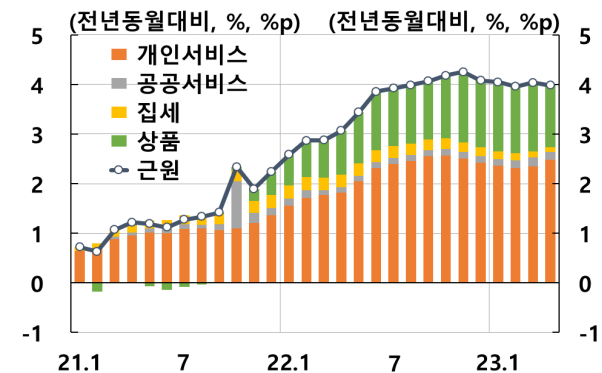
[그림 2.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자료: 통계청

### 개인서비스물가가 근원물가의 경직적 흐름을 주도

[그림 2.21]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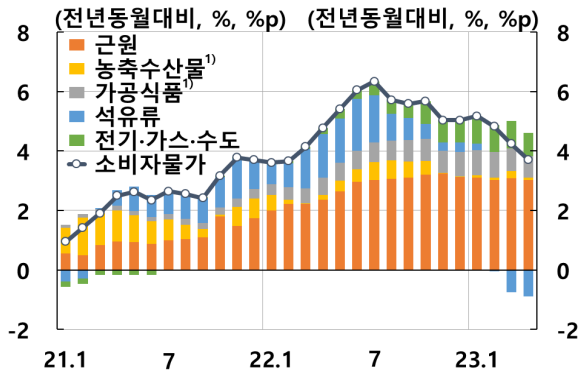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조사국

23.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도 최근 세 달 연속 하락하였다(2월 4.0% → 3월 3.9% → 4월 3.7% → 5월 3.5%).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5년앞, Consensus Economics)은 목표수준(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9)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정점(4.3%)을 기록한 이후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0.3%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근 석유류가격 하락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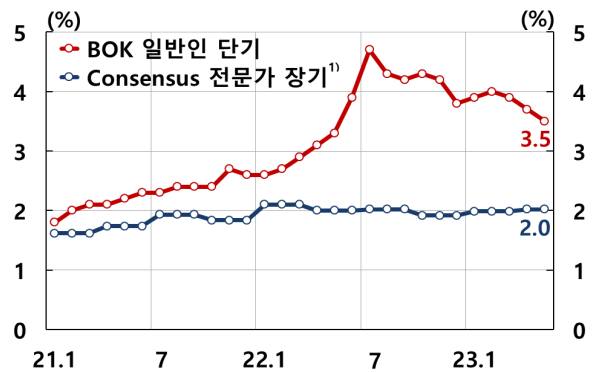
[그림 2.22]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주: 1) 근원품목 제외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조사국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최근 세 달 연속 하락

[그림 2.23] 기대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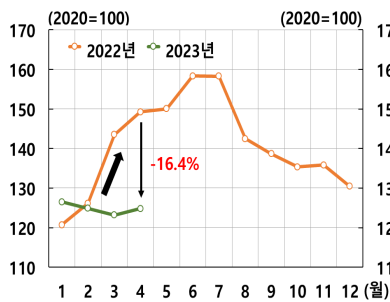


주: 1) 5년앞 기준  
 자료: 한국은행, Consensus Economics

24.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폭은 주택시장의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하락세 지속, 최근의 상품가격 오름세 둔화 조짐,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가격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석유류가격은 올해 중반까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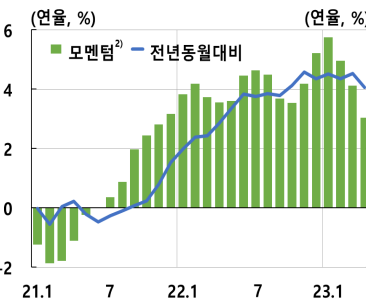
[그림 2.24] 석유류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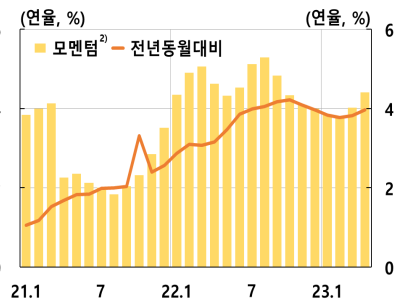
근원물가 내 상품은 최근 둔화 조짐, 서비스(집세 제외)는 최근까지 오름세 지속

[그림 2.25] 근원상품가격



주: 1) 집세 제외  
 2) 계절조정지수(3개월 이동평균)의 3개월 변화율(연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조사국

[그림 2.26] 근원서비스물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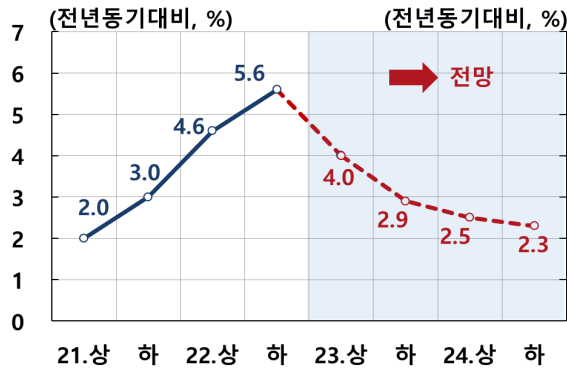


25.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상회(3.3%)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서비스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인상압력의 이차 파급영향 지속 등으로 지난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폭 확대<sup>40)</sup>,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시기 지연 및 인상폭 축소<sup>41)</sup> 등은 지난 전망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중에도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대 중반 및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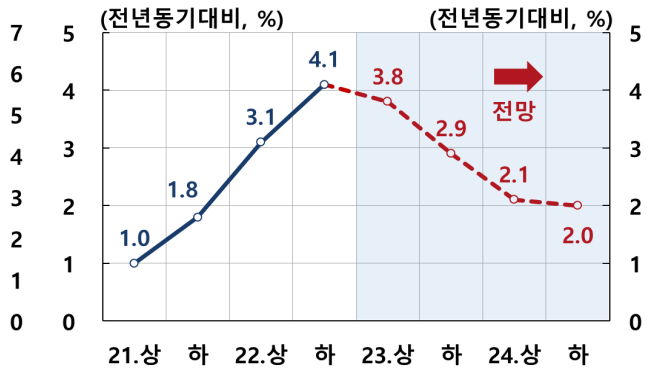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경로를 상회

[그림 2.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그림 2.28] 근원물가 상승률<sup>1)</sup> 전망



주: 1)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26. 향후 물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근원물가 흐름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및 파급영향, 글로벌 IT 경기 반등 시점, 글로벌 금융불안 확산 가능성, 원유 수급상황 등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 추이 및 국내외 경기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전기·도시가스요금과 여타 공공요금의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또한 향후 소비 회복 흐름,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소비자가격 전가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올해 근원물가의 전망 경로는 서비스물가의 오름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상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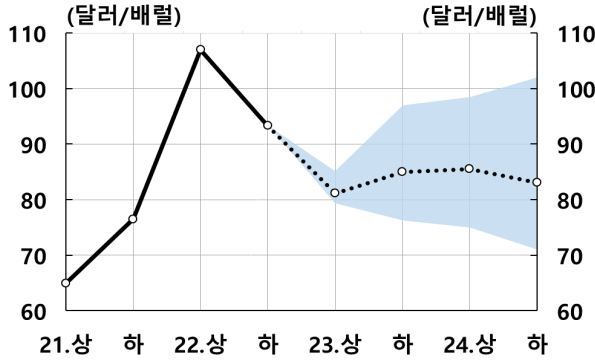
40) 국제유가는 금년 들어 70~8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SVB 사태 이후 70달러대로 하락하였다가 OPEC+의 추가 감산 결정(4.2일) 이후 80달러대로 높아졌으나 미국 경기둔화 우려 재부각 등으로 4월 말 이후 다시 70달러대로 낮아졌다 [두바이유가(달러/배럴): 23.1월 80.0 → 2월 81.2 → 3월 77.5 → 4월 83.8 → 5.1~23일 75.1].

41)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월부터 추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다가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8원/kWh, 도시가스요금은 +1.04원/MJ 인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보고서 [BOX 2]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를 참조하기 바란다.



유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그림 2.29] 주요기관 국제유가 전망<sup>1)2)</sup>



주: 1) 브렌트유 기준

2) 점선은 전망 전제치. 음영은 3개 기관(EIA, IHS, OEF) 및 5개 IB(GS, JPM, Citi, BoA, Barclays, MS) 전망 범위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각 기관

향후 물가전망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

[표 2.5] 향후 물가경로의 주요 리스크

상방리스크	하방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물가 높은 오름세 지속</li> <li>국제유가 상승</li> <li>원/달러 환율 재급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유가 하락폭 확대</li> <li>국내외 경기 둔화세 심화</li> <li>공공요금 인상 억제</li> </ul>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표 2.6]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sup>e)</sup>		2024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4.0	2.9	3.5	2.5	2.3	2.4
• 근원물가 <sup>1)</sup>	3.6	3.8	2.9	3.3	2.1	2.0	2.1

주: 1)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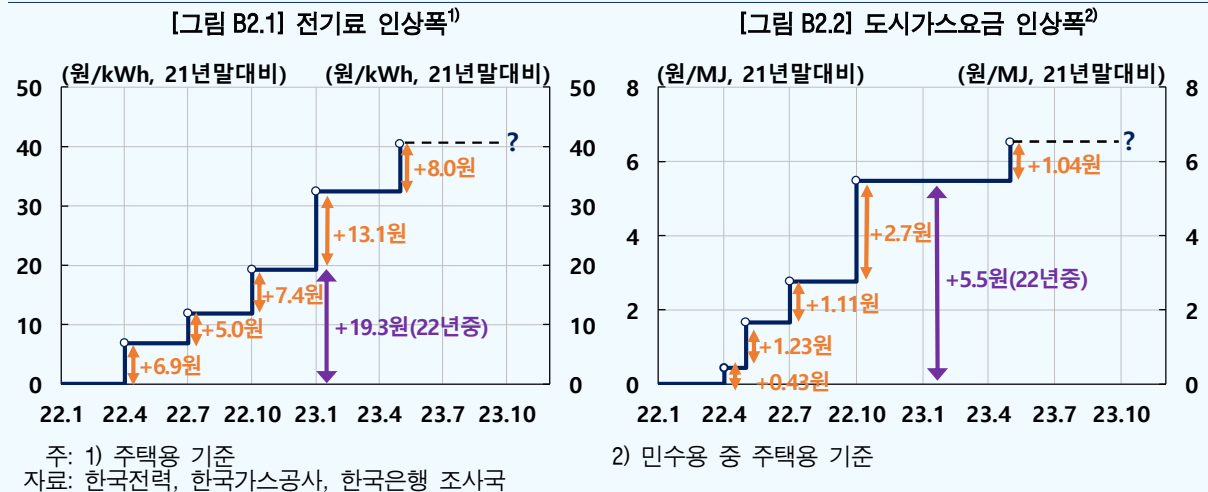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 BOX 2 전기·도시가스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5월 16일 각각 8원/kWh, 1.04원/MJ씩 인상되었다<sup>42)</sup>.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내 전기요금(가중치 1.6%)과 도시가스요금(가중치 1.3%)이 각각 5%가량 오르면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p 가량, 올해 연간 상승률은 0.1%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sup>43)</sup>.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폭(19.3원/kWh)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폭(5.47원/MJ)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8원/kWh)은 국민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 1월(13.1원/kWh)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상되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중 큰 폭 인상 후 2023년중 인상 폭과 시기가 조절



금년 들어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가 조절되고 있으나 지난 2년여간 우리나라의 인상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다. 이는 전기·도시가스의 원가를 구성하는 국제원자재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42)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332kWh, VAT 등 포함)은 63,570원에서 66,590원으로 3,020원, 도시가스요금(서울시, 3,861MJ 기준, VAT 포함)은 84,643원에서 89,074원으로 4,431원 각각 인상되었다.

43) 주택용 요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영향 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과 영업용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됨에 따라 원가부담 증가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는 간접적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인상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빠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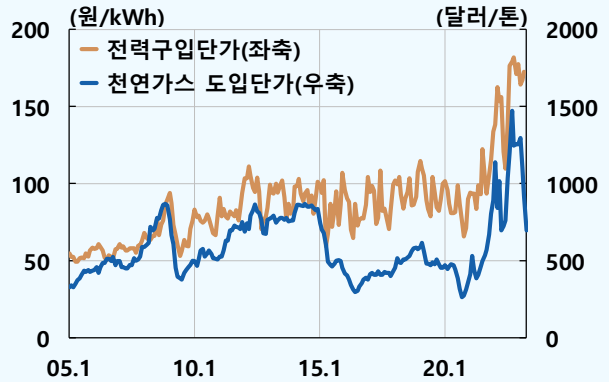
[그림 B2.3] 소비자물가 내 전기·도시가스요금



자료: 통계청

생산원가 상승이 인상의 주요인

[그림 B2.4] 전력구입단가<sup>1)</sup> 및 천연가스 도입단가<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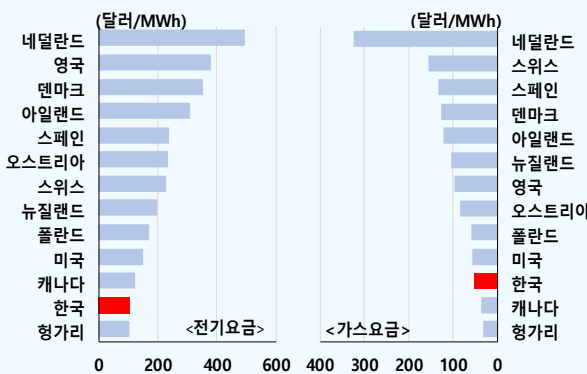


주: 1) 한전이 구입한 전력의 평균구입가격  
2)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자료: 한국전력, 관세청

다만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도시가스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최근 인상 속도도 더딘 편이다. 앞으로 전기·도시가스요금은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부담,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전기·도시가스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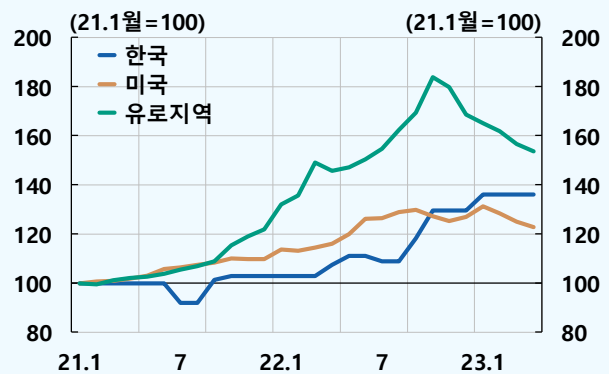
[그림 B2.5] 주요 선진국 전기·도시가스요금<sup>1)</sup>



주: 1) 2022년 기준  
자료: IEA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전기·도시가스요금이 뒤늦게 인상

[그림 B2.6] 주요국 전기·도시가스요금<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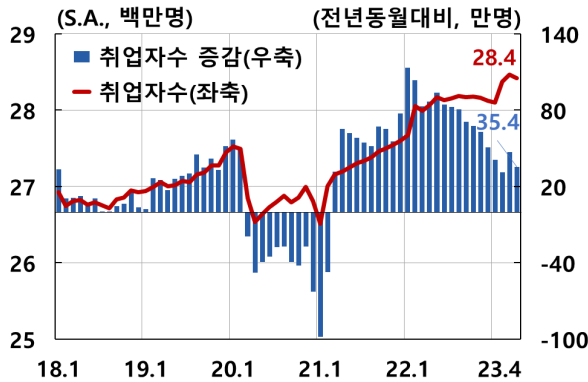
주: 1) 한국은 전기·도시가스요금, 미국은 energy service, 유로지역은 electricity, gas and other fuels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 고 용

27. 금년 들어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경기 둔화와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점차 축소<sup>44)</sup>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딘 모습이다<sup>45)</sup>. 이는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인력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건복지 관련 인력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연초 방역규제 추가 완화 등으로 대면활동이 지속 확대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sup>46)</sup>. 특히 여성의 경우 고령층 뿐만 아니라 30~50대 핵심연령층에서도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자수 증가세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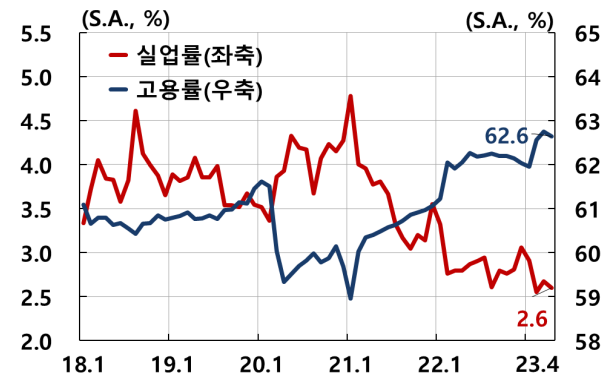
[그림 2.30]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실업률과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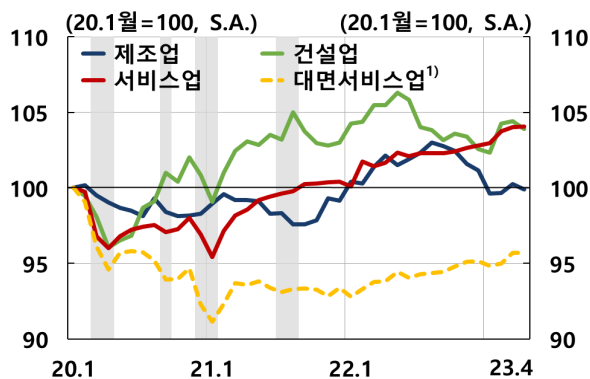
[그림 2.31] 실업률 및 고용률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

[그림 2.32] 산업별 취업자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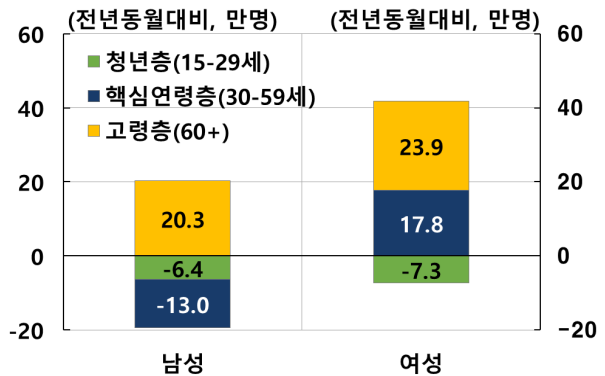


주: 1)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등

자료: 통계청

여성·고령층 중심으로 증가

[그림 2.33] 성·연령별 취업자수 증감(23.4월)



자료: 통계청

44) 취업자수 증가폭(전년동기대비, 만명): 22.3/4분기 78.0 → 4/4분기 60.4 → 23.1/4분기 39.7 → 4월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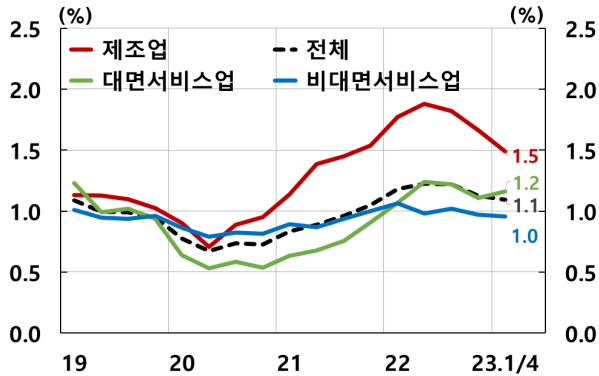
45) 23.3월 고용률(62.7%, 계절조정기준)과 4월 실업률(2.6%)은 각각 2000년 이후 최고, 최저 수준이다.

46) 23.4월 취업자수 증가규모(35.4만명, 전년동월대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97.5%(34.5만명), 60세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9%(44.2만명)였다.

28. 노동수급 상황은 tight한 상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업종별로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제조업은 업황부진의 영향으로 빈일자리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반면, 대면서비스업 빈일자리율은 소폭 반등하였다. 전반적인 빈일자리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제조업 중심으로 tightness 완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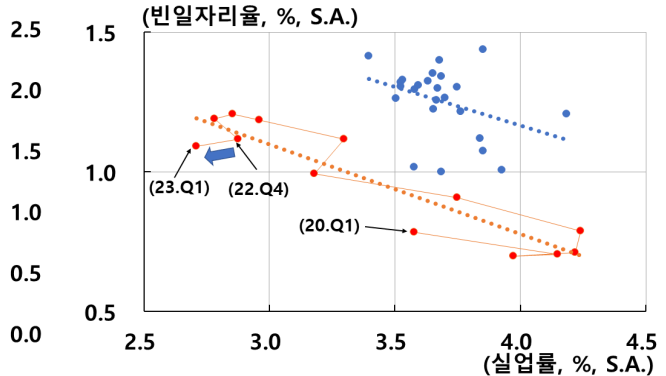
[그림 2.34] 산업별 빈일자리율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베버리지 곡선(실업률, 빈일자리율) 좌하향 이동

[그림 2.35] 베버리지 곡선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조사국

29. 1~2월중 명목임금<sup>47)</sup>(전년동기대비)은 2.1% 상승하여 전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임금의 기초적 흐름을 나타내는 상용직 정액급여<sup>48)</sup> 상승세가 둔화된 데다, 특별급여가 기업실적 부진과 전년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축소된 데 기인한다<sup>49)</sup>.

명목임금 상승률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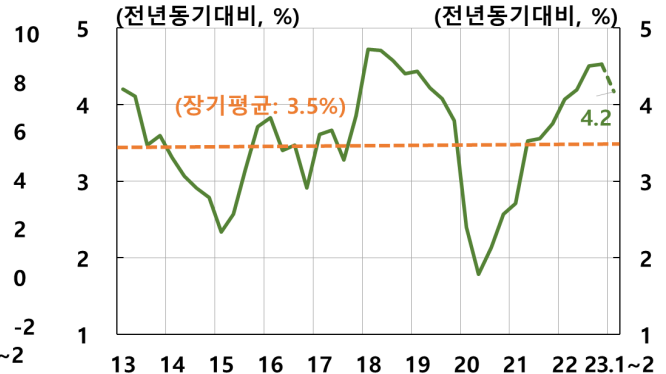
[그림 2.36] 1인당 명목임금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그림 2.37]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47) 1인당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2.3/4분기 4.0 → 4/4분기 4.1 → 23.1~2월 2.1

48) 상용직 정액급여 상승률(전년동기대비, %): 22.3/4분기 4.5 → 4/4분기 4.5 → 23.1~2월 4.2

49) 다만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임금상승률(1~2월 7.2%)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30. 금년중 취업자수는 당초 예상을 상당폭 상회하면서 25만명(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對중·IT 수출부진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하고, 정부 직접일자리 규모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sup>50)</sup>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업에서 보건복지 관련 인력수요가 지속되고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년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전망수준(+13만명)을 상당폭 상회하는 25만명(전년대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중 취업자수는 금년 대비 1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1. 금년과 내년중 실업률은 각각 3.0%, 3.1%로, 고용률은 각각 62.4%, 62.6%로 전망된다.**

[표 2.7] 고용 전망

(만명, %)

	2022		2023 <sup>e)</sup>		2024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취업자수 증감 <sup>1)</sup>	82	35	15	25	16	21	18
실업률	2.9	3.1	2.8	3.0	3.3	2.8	3.1
(S.A.)		(2.8)	(3.1)		(3.1)	(3.0)	
고용률 <sup>2)</sup>	62.1	62.2	62.6	62.4	62.3	62.9	62.6
	[68.5]	[68.8]	[69.0]	[68.9]	[68.8]	[69.2]	[69.0]

주: 1) 전년동기대비 2)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 부동산

**32.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들어 하락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LTV 완화, 특례보증자 리론 시행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함께 최근의 대출금리 하락도 주택가격 하락세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이에 따라 주택매수심리가 개선되었으며, 실거래가격도 소폭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다<sup>52)</sup>. 주택전세가격의 경우에도 최근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sup>53)</sup>. 이는 그간 전세가격 조정폭이 매매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데다 최근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아래로 하락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0) 정부 직접일자리 규모(만명): 20년 94.5 → 21년 100.7 → 22년 103.0 → 23년 104.4(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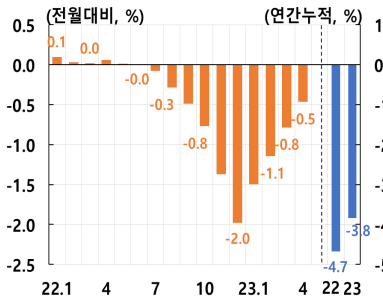
51) 특례보증자리론(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DSR 적용 배제) 시행으로 인해 최근 3-9억원 주택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52) 매매수급지수(한국부동산원): 22.12월 74.6 → 23.1월 76.1 → 2월 77.1 → 3월 79.8 → 4월 82.4

53)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전월대비, %): 22.10월 -1.7 → 11월 -3.2 → 12월 -3.3 → 23.1월 -3.3 → 2월 -0.8

주택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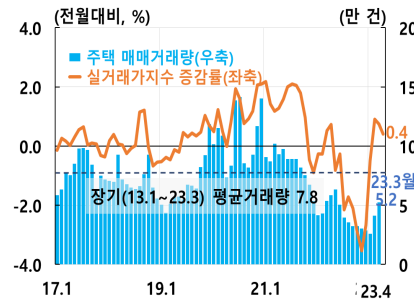
[그림 2.38] 전국 주택 매매가격



자료: 한국부동산원

금년 2~4월 연속 실거래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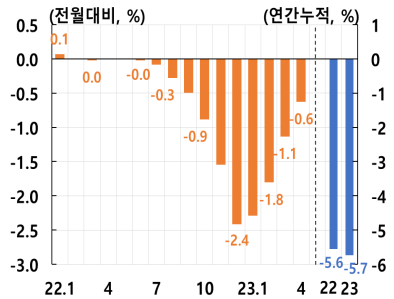
[그림 2.39] 실거래가격<sup>1)</sup> 및 거래량<sup>2)</sup>



주: 1) 전국 공동주택 기준  
2) 전국 주택, 신고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 전세가격 하락폭 축소

[그림 2.40] 전국 주택 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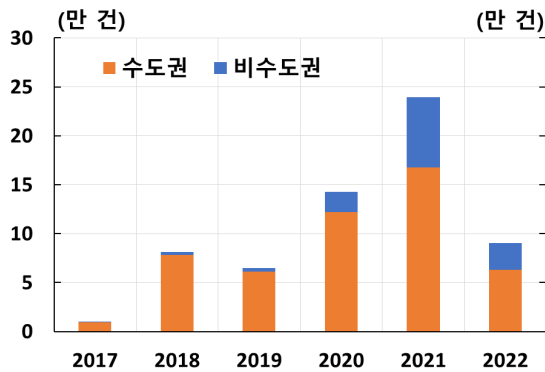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33. 향후 주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는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 전세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보유주택을 매도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sup>54)</sup>. 특히 크게 늘어났던 갭투자 물량이 역전세 하에서 점차 만기도래하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sup>55)</sup>. 다만, 2~3년 시계에서는 최근 PF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 수급불균형을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

21년 갭투자건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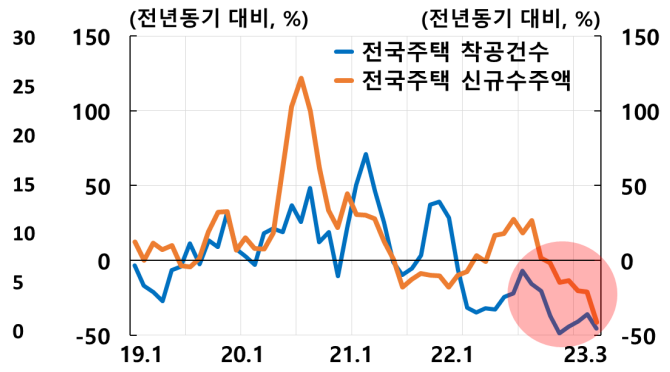
[그림 2.41] 갭투자건수



자료: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한국은행 조사국

주택 신규수주액 및 착공건수 감소

[그림 2.42] 주택 신규수주액 및 착공건수 증가율<sup>1)</sup>



주: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협회

54) 전세관련 리스크요인은 경제전망보고서 [BOX 3]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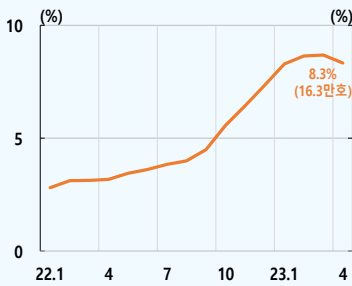
55)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임대목적의 주택 매매를 갭투자로 분류하였다. (자금조달계획서 원시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주택 매수인 개인정보를 임의의 숫자로 대체하여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되었으며, 주택의 주소 역시 시군구까지만 식별 가능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음)

**BOX 3**    **강통전세 ·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강통전세’<sup>56)</sup>와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sup>57)</sup>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sup>58)</sup>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22.1월 2.8%(5.6만호)에서 23.4월 8.3%(16.3만호)로 크게 증가하였다<sup>59)</sup>. 또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22.1월 25.9%(51.7만호)에서 23.4월 52.4%(102.6만호)로 크게 높아졌다. 지역별로 강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1.3% 및 48.3%)보다 비수도권(14.6% 및 50.9%)과 경기·인천(6.0% 및 56.5%)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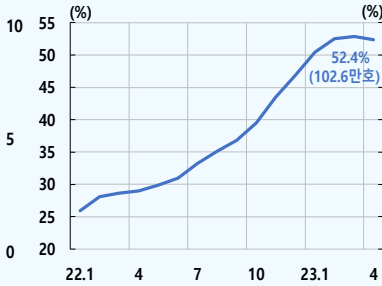
**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증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증가    강통전세 ·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서울 외 지역에서 높음**

[그림 B3.1] 강통전세 위험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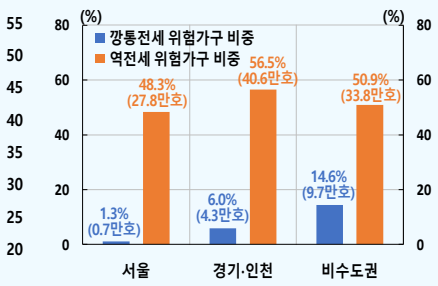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그림 B3.2]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그림 B3.3] 지역별 강통전세 ·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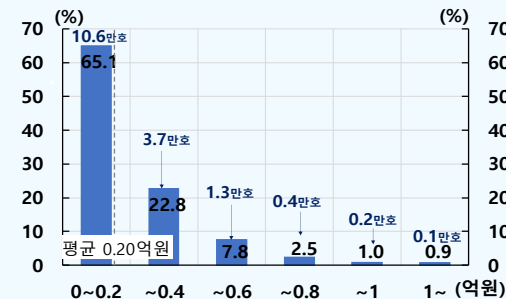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23.4월 기준으로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강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대비 매매시세가 0.2억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면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0.7억원 정도 하회한다. 강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의 상위 1%는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역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세가격 격차의 상위 1%는 3.6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강통전세의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는 평균 0.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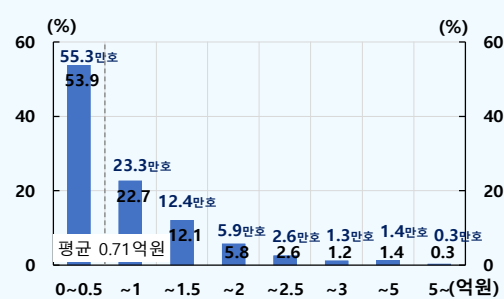
[그림 B3.4] 강통전세의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역전세의 보증금과 전세시세 격차는 평균 0.7억원**

[그림 B3.5] 역전세의 보증금과 전세시세 격차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56) 각 시점의 잔존 전세계약(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 중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시세(주소, 건축년도 및 평형이 동일한 주택의 6개월내 최근 매매가격)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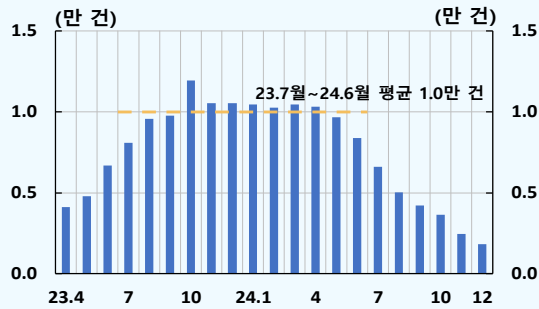
57) 각 시점의 잔존 전세계약(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 중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주소, 건축년도 및 평형이 동일한 주택의 6개월내 최근 전세가격)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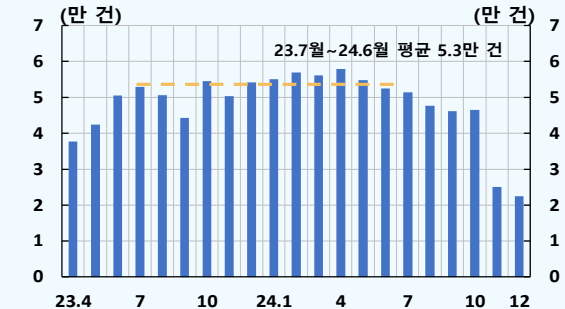
이처럼 **강통전세와 역전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몇년간 주택시장 변동성이 컸던 데 주로 기인하는데,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월 현재 강통전세 계약 중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비중이 각각 36.7%, 36.2%이며, 역전세는 28.3%, 30.8%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강통전세와 역전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B3.6] 23.4월 현재 시기별 강통전세 만기도래 규모 [그림 B3.7] 23.4월 현재 시기별 역전세 만기도래 규모**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강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sup>60)</sup>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sup>61)</sup>. 또한 강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58) 21.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계도 중이기 때문에,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잔존 전세계약 수(22년 평균 약 200만 건)는 전체 잔존 전세계약 수(인구주택총조사 20년 기준 약 325만 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강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본 장의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

59)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없어 시세를 추정할 수 없는 전세계약 중에도 주거유형별로 동일한 비율의 강통전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역전세 추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대상 전세금액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다.

61)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관계 설정시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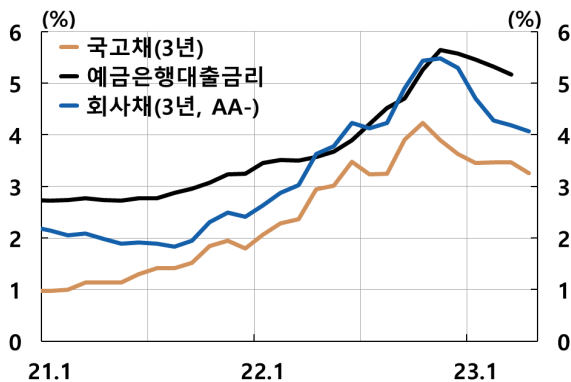
## 금융

34. 국내 금융부문은 SVB사태 이후 금융불안 우려가 상당부분 진정되었으나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부문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주목하면서 향후 추가 통화긴축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고채금리 등 시장금리와 여신금리가 모두 하락하고 주가는 반등하였으며, 전반적인 시장변동성은 완화되었다. 신용공급 측면에서는 4월중 가계대출이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고 기업대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누적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취약부문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연체율이 비은행,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실 리스크도 잠재하고 있다.

### 최근 시장금리와 여신금리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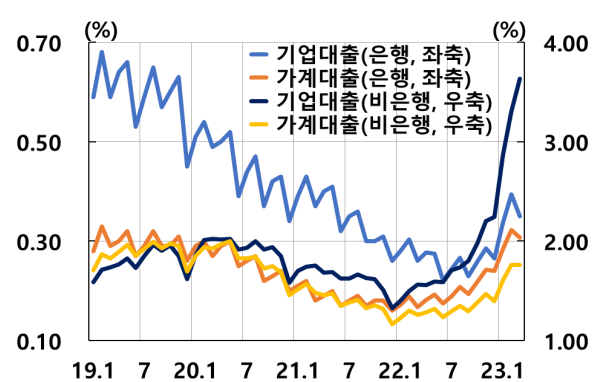
[그림 2.43] 국고채, 회사채 및 대출금리<sup>1)</sup>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대출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신용위험이 증가

[그림 2.44]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



자료: 금융감독원

##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1 : 중국경제 회복세 강화

35. 향후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이 서비스에서 재화 및 해외여행으로 확대되면서 IT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국제원자재가격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경우 금년 국내 성장률은 1%대 중반(baseline대비 +0.2%p), 물가상승률이 3%대 후반(+0.3%p)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 무역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이 對중국·IT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중국인 방한객도 늘면서 국내 서비스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 측면에서는 이러한 수요측 요인과 함께 에너지가격 상승을 통한 공급측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 시나리오 2 : 중국경제 회복 지연 및 선진국 금융불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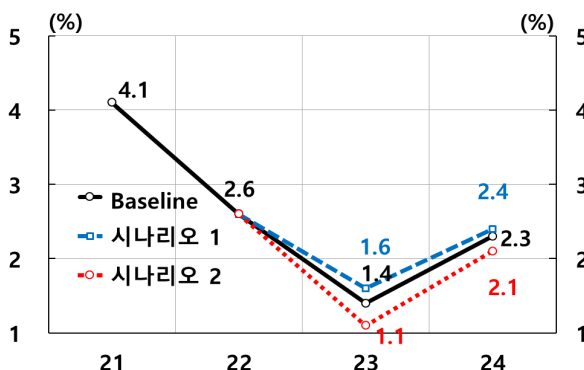
36. 중국은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 및 대외여건 악화로 내수·제조업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에서는 금융불안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금년 성장률은 1%대 초반(baseline대비 -0.3%p)으로, 물가상승률은 3%대 초반(-0.2%p)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IT 경기부진으로 국내수출의 회복이 지연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 업황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의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공급 위축은 금융경로를 통해 국내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의 경우 환율상승의 상방압력에도 국제유가 하락, 국내외 경기둔화 등으로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

(2023년 전제)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 중국 성장률	5.3%	5.8%(+0.5%p)	4.7%(-0.6%p)
▶ 국제유가(Dubai)	82달러	88달러(+6달러)	76달러(-6달러)
▶ 미국 신용 스프레드	-	-	+70bp

금년 성장률은 시나리오별로 1% 초반~중반 수준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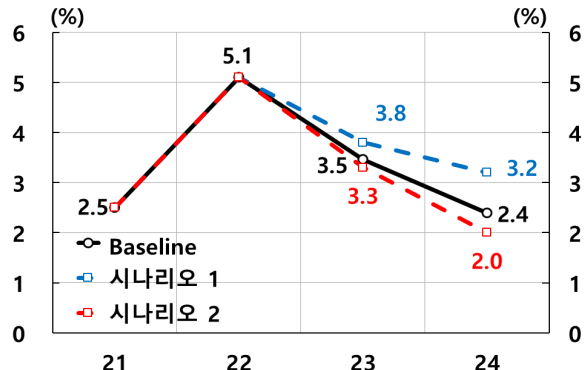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후반 수준으로 추정

[그림 2.45] 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그림 2.46]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